

새로운 밀레니엄에 거는 우리의 기대

Our Hopes for the New Millennium

장석웅 /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by Jang Seok-Woong

요즈음 온세계가 새천년을 맞이할 이벤트행사 준비에 언론매체마다 대서 특필하고 있다.

새천년의 시작이 이제 눈앞에 다다랐다. 다가오는 새 밀레니엄은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 사이에 높은 울타리나 굽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인데도 모두가 떠들석한 것은 세월의 흐름에 의미를 두어 새로운 다짐과 새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는데 큰 뜻이 있는 듯하다. 새천년의 출발이 이렇듯 요란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축계도 이제 오늘을 자성하고 개혁하여 미래에 대한 새 각오로 새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1997년 12월,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편입되어 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좌절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급변하는 세계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건축계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이며, 장차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IMF이전에는 "AA"이었던 것을 "BBB"로 급락시켰다가 최근 "BBB"로 한단계 높여주었지만 일부 소비패턴의 회복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상태는 칼날 위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이고 보면 우리 건축인이 느낄 수 있는 청신호는 과연 언제쯤일까 매우 걱정스럽기만 하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건설경기의 IMF이전 수위로의 복귀는 대략 2004년경으로 보고 있어 생존에 대한 걱정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업친데 덤친격으로 우리 건축전문직의 국제적 인증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많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늦게나마 우리 건축계도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와 기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6월 UIA(세계건축사연맹) 북경대회에서 건축교육과 건축사 상호인증 등 전문직에 대한 국제장려 기준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기술자 상호인증 협약이 이미 1993~1996년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축교육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1994년 이후 각종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주변여건의 냉대로 실패하였고 이제와서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기존 교육제도는 국제적 인증기준에 턱없이 미달되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직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없는 등 국제적으로 각종 불이익이 초래될 뿐만아니라 전문직종에 관한 국제적 고립을 면키 어렵게 될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기술인력 확보가 불가능함은 물론 많은 용역대가로 외화가 빠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되고 있다. 변화에 발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중국을 비롯한 이웃국가가 부럽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관, 학, 산이 힘과 뜻을 합쳐 하루속히 대학교육제도 개선과 기술직 면허 상호인증을 위한 각종협약 및 교섭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건축계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다.

1999년은 우리들이 선포한 “건축문화의 해”로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 3단체는 협력과 화합하여 국제대회 및 국내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름대로 건축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항상 만족은 얻을 수는 없으나 이번 “건축문화의 해”는 새천년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과거 100년을 돌아보며 오늘을 조명하므로써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 미증유의 행사였다. 과거 시대상황에서 낳은 건축3단체가 이제는 한 목소리로 멋진 화음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천년의 새기운으로 묵은 때를 밀어버리고, 화합하여 단결된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국경은 없고 문화는 있는 시대라고 한다. 21세기는 상상을 초월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환경이 중요시되고 국경을 초월한 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이다. 그래서 새천년의 출발은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 강한 도전으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과 도전의 시대에는 획기적인 의식개혁으로 기존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화합된 우리 건축인의 사회적 책임과 권한이 담긴 비장한 새각오의 메시지가 온세계인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 외쳐야 하겠다.